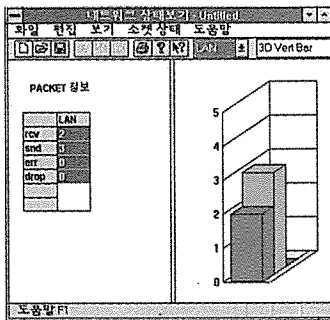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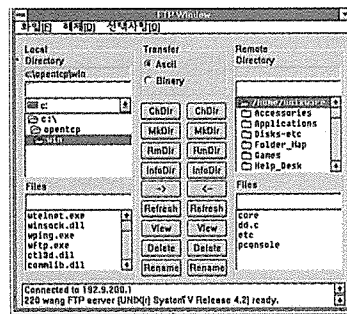


■ 네트워크관리프로그램 OPEN TCP/IP

TCP/IP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IP(Internet Protocol)를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TCP와 IP프로토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UDP, ICMP, ARP, RARP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다. 이들 각각이 프로토콜로 존재하고 있으나 독립적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다. 이들이 결합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전송이라는 하나의 신뢰성있는 거대한 서비스를 이루어 내며, TCP/IP라 함은 바로 이들 프로토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네트워크 상태 출력



▲ 윈도우에서 FTP사용화면

TCP/IP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점 커가는 가운데 많은 영문 제품에 한글 기능을 추가하여 상용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OPEN TCP/IP가 출시되었는데 성능과 기능에서 기존의 제품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복잡/다양해져가는 Multi-Vendor 네트워크 환경을 원활하고 강력하게 Inter-Networking을 구현하도록 도와준다. 상용화된 일부 TCP/IP는 사용도중 속도가 저하되거나 데이터가 분실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OPEN TCP/IP에서는 이런 기능을 많이 보완하여 한글과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 주고 있다.

OPEN TCP/IP는 데이터의 송·수신중에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오버랩, 데이터의 유실 등 통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험성을 제거하고 사용도중 접속이 끊기거나 속도가 갑자기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다

수의 사용자 접속에도 불구하고 고속 처리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다 작은 크기로 빠른 전송이(270,000byte/s) 가능하다.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LAN 환경과 LAN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라우터, DSU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사용환경만으로도 개인 사용보다는 회사 내의 LAN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OPEN TCP/IP는 도스와 윈도 환경에서 모두 실행가능하다. 일반적으로 TCP/IP를 사용하려면 윈도를 이용하지만, 도스에서도 윈도없이 TCP/IP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스

에서도 윈도처럼 그래픽 사용자 메뉴로 된 셸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LAN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상태를 3차원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제공된다.

대부분의 텔넷(텔넷(Telnet)이란 자신의 PC로 호스트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으로 로그인(Login) 후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텔넷을 통하면 전화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국내 통신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국외

의 컴퓨터 등에도 연결할 수 있다)프로그램이 이야기나 기타 통신프로그램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기능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한 통신망 접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OPEN TCP/IP의 NVT이다. Z모뎀이나 커밋(Kermit)을 이용한 파일전송, 갈무리기능, 다양한 터미널 등의 기능들은 통신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들이다. Z모뎀을 이용하면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파일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TCP/IP상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인 FTP도 노턴 커맨더 화면처럼 구성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다른 프로그램보다 전송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OPEN TCP/IP에도 단점은 있다.

첫째로 사용자 환경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사소한 사용자 기능이 빠져있다. 예를 들어 <Ctrl-Break>나 <Ctrl-\>키



등의 정지키가 없어 호스트에 접속할 때나 ftp 파일 송수신 중에 멈추고 싶거나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꼼짝없이 리셋(Reset)버튼을 눌러야 한다.

둘째로 도스셸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텔넷프로그램의 경우 셸에서는 SETUP에 잡힌 호스트만 접속할 수 있을 뿐, 다른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도스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로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이 도스에 비해 적은 편이다. 도스용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반면, 윈도우에는 필요한 몇 가지 이외에는 많이 유틸리티를 지원하지 않는다. 복잡하고 거대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활하고 강력하게 네트워크 작업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TCP/IP 소프트웨어는 사용법이 까다롭고 복잡한 관계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해 줄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OPEN TCP/IP의 사용 환경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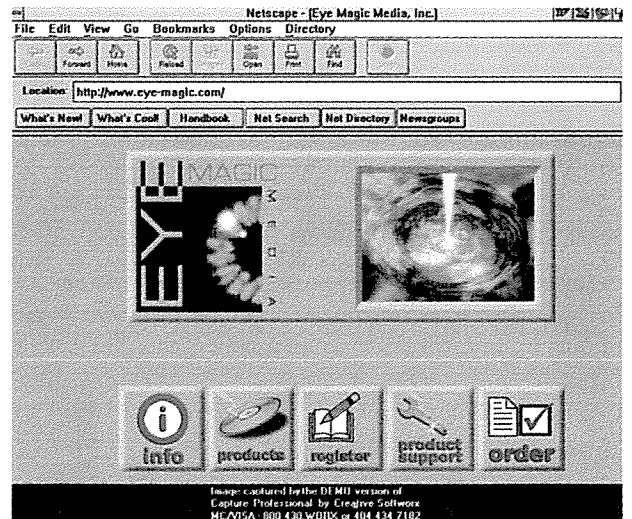
사용환경	IBM PC 호환기종, HDD 2MB 이상
운영체제	도스 3.2 이상, 윈도 3.0 이상
제품구성	도스용 디스켓 3장, 윈도용 디스켓 3장
지원네트워크카드	이더넷, LAN카드, IBM코근링

■ 아이매직미디어사, 홈페이지 빌더 발표

아이매직미디어(Eye Magic Media)사에서 발표한 HTML 에디터, 홈페이지 빌더(Hompage Builder)를 사용해 홈페이지를 작성해 보자.

우선 페이지 타이틀을 정한 다음, 배경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과 대화형식으로 차례차례로 페이지의 구성요소를 만들어간다. 선택된 스타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섬세하게 재작성할 수 있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복잡한 HTML문법을 익힐 필요가 없다. 특히 이미 만들어진 페이지 템플릿(Template)이 제공돼 페이지 공간에 문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개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홈페이지 빌더는 인터넷의 HTML 포맷 기준을 따르며 워드 프로세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HTML의 태그(Tag) 대신 아이콘, 버튼, 풀다운 메뉴 등을 써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면 초보자도 손쉽게 웹문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아이매직미디어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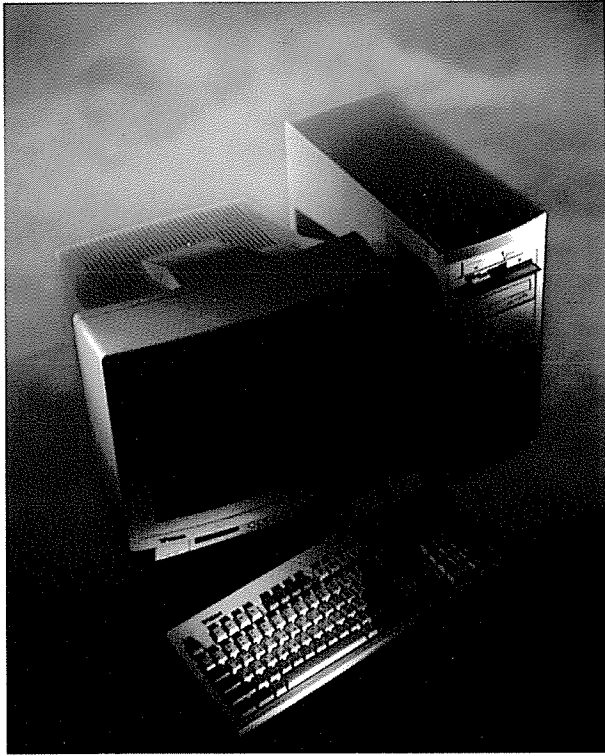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사진, 클립아트 모음이 번들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는 벽지 무늬를 포함해 모두 1백가지이며, 아이콘 50가지, 컬러사진 50장, 로프, 무지개, 뱀, 리본 등 선 모양 1백50가지가 제공된다. 또한 기능버튼이나 색인기호 75가지, 세계 각국 국기 3백종도 들어 있다.

가격은 20달러이고 현재 윈도 95버전만 발표되어 있지만 앞으로 윈도 3.1용과 매킨토시용도 판매될 예정이다.

■ 삼보컴퓨터 OA전용시스템, 사이버넥스

삼보컴퓨터는 펜티엄 150MHz, 133MHz CPU 기반의 OA 전용 시스템 '사이버넥스' 5개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이버넥스 제품군은 한글윈도 95를 기본 운영체제로 하며 16MB메모리, 1.6GB와 2GB의 하드 디스크를 채택하고 있다. 또 14,400BPS 팩스모뎀과 16비트 스테레오 사운드 카드, 4배속 CD-ROM 드라이브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사이버넥스는 인텔 트라이톤 칩세트와 EDO램, 그리고 PB SRAM을 탑재하고 64비트 PCI비디오 카드 (2MB의 비디오 메모리)를 사용해 CPU의 성능을 최대화하고 있어 고용량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DTP, CAD, 그래픽 등의 작업에 적합하다. 이와 함께 삼보컴퓨터는 75MHz, 100MHz CPU를 장착한 저가형 사이버넥스 모델도 발표했



품보다 내구성을 5배 이상 향상시켰다.

그밖에 이 제품은 도시바, 히타치, IBM, 시게이트 등 기존 HDD업체들이 개발한 노트북용 HDD보다 정보검색시간 면에서 30% 정도 빠르고 전력소비도 4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알에프테크사의 전자수첩 삐삐 '제뉴윈(GENUWIN)'



모델명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비디오 메모리	CD-ROM	가격 (VAT별도)
T315	100MHz	8MB	1GB	1MB	4배속	2백15만원
T605		16MB	2GB		6배속	미정

알에프테크와 한국이동통신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뉴윈(Genuwin)'은 기존의 호출기 개념을 한차원 높은 다기능 전자수첩 삐삐이다. 호출기업계에 새로운 관심을 끌고올 이 제품은 기존의 시계삐삐나 볼펜삐삐와 비교해서 훨씬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삐삐와 전자수첩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제뉴윈은 컴퓨터 키보드와 동일한 자판 배열로 구성되어 있어 한글입력이 쉬우며 스케줄, 전화번호, 메모, 계산 기능 외에도 워드프로세서형 기능(한글, 영문, 한자, 숫자)을 갖추고 있으며 영문 5만자, 한글 2만5천자까지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데이터 검색기능도 대폭 강화된 제품이다.

제뉴윈의 주요 기능을 보면, 전체삭제기능, 자동 On/Off 기능, 보호 메시지 읽기, 멜로디 선택기능, 저장된 메시지 및 생활정보 조회기능과 기본적인 전자수첩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삐삐기능으로서는 1백가지 정형문 저장 및 열람기능, 생활정보 (주요뉴스, 일기예보 등 30가지), 생활안내전화(공공기관, 긴급번호)열람기능, 자동 정렬(sorting)기능, 배터리 On/Off기능 등이 있다.

는데, 여기에는 8MB의 EDO 램과 850MB, 1GB의 하드 디스크가 장착돼 있다. 가격은 1백65만원에서 2백70만원에 이르기까지 사양에 따라 다양하다.

■ 1GB급 노트북용 HDD '아크로바트'

삼성전자가 미국의 노트북용 HDD 전문업체인 인티그럴사와 공동으로 2.5인치 크기의 1GB급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아크로바트'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삼성전자가 1백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이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6.5mm 정도 두께가 얇은 12.5mm의 높이를 지니고 다이내믹 헤드로딩 방식(박막헤드가 디스크 미디어 외부에 있다가 HDD작동시 디스크미디어 위로 올라가는 첨단 헤드구동법)을 채용해 기록밀도를 높이는 한편 헤드와 미디어간에 서로 달라붙는 현상을 제거, 기존 제



또한 반영구적인 충전식 배터리를 내장하여 한번 충전으로 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시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서 재충전시기를 확인할 수도 있다. 크기는 101×66×16mm 초소형으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게 디자인되었다.

■ 인터넷 엑스포 가는 길



대부분 박람회라고 하면 특정장소에 전시장을 설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란한 전시회장을 연상한다. 그러나 인터넷 엑스포는 '인터넷에 대한 박람회'가 아니라 '인터넷 속에서 열리는 가상공간의 박람회'이다.

따라서 인터넷 엑스포를 찾아가려면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 앞으로 가야한다. 이미 지난 2월 8일 개막되었으므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인터넷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주소 (<http://www.seoul.park.org>)를 입력하면 바로 박람회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인터넷 엑스포는 '파빌리온(주제전시관)' '장소' '행사' 등 세 개념으로 구성된다. 전 엑스포같은 산업사회의 박람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파빌리온(주제전시관)과 행사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며 그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안방이든 인터넷 카페든 혹은 사무실이든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해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인터넷 엑스포 사이

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곳에는 일반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시공간이 만들어져 있거나 현재 건설중에 있다. 전시공간으로는 개인 사용자들의 홈페이지를 모은 '인터넷 타운홀',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중소기업관', 전자신문 등 미래의 첨단 미디어들이 총출동하는 '미래미디어관'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는 솔빛조선미디어가 서울의 이색상점을 소개하는 '서울의 시장', 나우콤이 국내 전통 재래시장을 인터넷상에 알리는 '난장(亂場)', 데이콤이 '한국의 민속문화' 등을 소개한다.

인터넷 박람회에서는 전시장뿐 아니라 각종 실제행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계된다. 5월에는 인터넷을 주제로 한 각종 워크숍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며 6월에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광복절을 전후해서는 광복 이후 50년간의 한국발전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소개하고, 10월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름방학에는 '인터넷 서머스쿨'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세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각 나라들의 센트럴 파크 서버를 연결하는 인터넷 철도는 T3급(45Mbps)의 초고속망으로 하루 24시간 비상업적인 행사 정보만을 흘려보내며 책 1천쪽 분량의 정보를 단 1초만에 전송할 수 있다. 그림과 글자는 물론 동영상도 거의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이 T3초고속망의 특징인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정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될 T3급 인터넷 철도는 오는 7월1일 개통되는데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연말까지 회선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올해의 인터넷 엑스포는 사실상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실험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를 잡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의 고유한 정보나 문화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 한해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T3초고속망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타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⑤7